

일 주 문



하와이 무량사 보살계 수계법회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25일 하와이 무량사 개산 40주년을 맞아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법회에서 전계사로 나섰다.



<불교평론> 11월 열린논단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11월 19일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11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02)739-5781

“불교인재 양성에 써주세요.”

변금연 보살, 동국대에 1000만원 전달



평생 사찰 공양주로 살아온 변금연 보살(정진인, 82)은 11월 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변금연 보살은 “스님이 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평생 절에서 기도하며 살아왔다. 인생 말년이 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을 순례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찰에 조금씩 봉사하며 회향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방승을 통해 100살 넘은 노스님도 기부하신 모습을 봤고, 부처님 뜻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돼 인재발사에 동참하고 싶어서 찾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9회 한국불교선리연구 학술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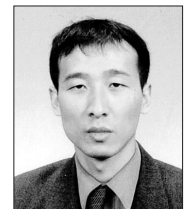
우수상에 조윤경, 학술상에 강대현·김한상 박사



조윤경



강대현



김한상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2015년도 학술상 공모결과 우수상에는 조윤경 중국 베이징대 대학원 박사의 ‘삼론중에서의 방편(方便)의 의미 - 방편과 권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학술상에는 강대현 위덕대 대학원 박사의 ‘반야42자문을 통한 대승공사상의 이해와 실천’, 김한상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교 박사의 ‘스리랑카의 불교 영웅 뉘타가마니의 무용담에 대한 문헌학적 접근: 빨리 문헌과 한역 불전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정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독도 지키는 것이 곧 통일운동”

<독도는 통곡한다> 공저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



韓 민족과 1700년 함께 불교

민족 정체성 지키기 나서야

독도 침탈하려는 日 좌시 안돼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하지만 남북분단 70년이자 명상 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당한 을미사변 1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에서 큰 아픔인 남북 분단은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평화헌법을 개헌해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前 동국대 정무원장이자 조국평화통일협회장인 법타 스님(사진)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성토했으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의 성토에는 최근 최종환 박사와 공저한 <독도는 통곡한다>의 발간 이유가 담겨 있었다.

<독도는 통곡한다>는 일종의 독도에 대한 ‘역사 개론서’이다. 삼국시대부터 대한 제국까지의 독도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고, 한·중·일 삼국의 고지도를 통해 독도는 한국 소유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 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의 독도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역사도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법타 스님은 통일 운동가로서도 잘 알려

져 있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해 ‘금강국수공장’ 설립, 생필품 지원 등 북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북한의 절과 불교>, <평화통일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등 저서도 통일운동의 산물이다. 통일운동의 선구자인 법타 스님이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해오는 것도 통일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도 지키기 운동도 크게 보면 통일 운동입니다. 일본은 근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전해준 국가입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가진 독도를 지켜가는 것은 남북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동일한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독도 지키기 운동을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타 스님은 불교가 민족 동질성 회복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함께 고락(苦樂)을 함께 해 온 불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민족의 아픔은 분단이지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는 그 역사 속에서 민족의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불교가 모든 노력을 전착해야 합니다. 독도 지키기 운동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타 스님은 <독도는 통곡한다>를 통해 많은 국민과 불자들이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본의 야욕을 없앨 수 있는 독도 지키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지혜로운 대처 방법도 터득했으면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독송회, 동행에 500만원 전달



사단법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용, 이하 금강경독송회)는 11월 11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에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세계에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 우수함을 전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 한국알리기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1973년 설립 이후 국내외의 1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며,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을 50만권 보급시키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2012년 11월 아름다운동행에 기금 전달 이후 티베트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난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난민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티베트 난민 67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도 티베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군종교구, 불자 장군진급 축하만찬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4일 국방부 국방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장군 진급 불자 대상 축하만찬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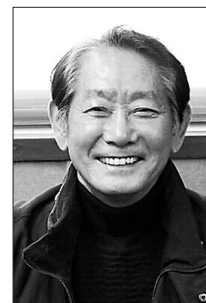
올해 장군으로 진급한 불자는 최병호 육군본부 헌병실장 등 7명으로 이날 만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총무국장 지선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오원진 장군과 각 군 선임군승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 불자들에게는 자승 스님이 마련한 ‘수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법문을 새긴 ‘장군 지휘봉’과 정우 스님이 마련한 <달라이 라마 마음의 고향을 찾아> 책 등이 전달됐다.

정우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로 자신을 통찰하며, 부처님의 자비로 만나는 인연마다 나누고 베푸는 불자 장군이 되길 기원한다”며 “군불교의 발전과 화합, 군장병 포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불자 장성들은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군불교 발전을 함께 염원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전무송·전원주, “네팔에 희망을”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로 'BBS라디오' 재능 기부



전무송



전원주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배우 전무송씨와 전원주씨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에 나섰다.

전무송, 전원주씨가 지난 10월 22일과 11월 4일 BBS불교방송 라

오 '지구촌 공생회 사업소개 및 후원광고'에서 내레이션을 맡아 목소리 재능을 기부했다. 이는 지구촌공생회가 실시 중인 네팔 지진 장기재건 사업 '스무고개 스무학교 및 케나 식수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후원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다.

전원주씨는 “내레이션 참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다”면서 “네팔 아이들을 위한 튼튼한 학교가 세워져 희망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전무송씨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구촌공생회는 “전무송, 전원주씨는 지난 2012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캄보디아 지뢰제거, 케나 식수사업 등 지구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나눔실천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면서 “전원주씨의 화통한 웃음과 전무송씨의 따뜻한 음색으로 네팔을 위한 진심이 담긴 음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세우고, 2016년부터 3년 간 네팔 신두팔축 지역에 학교 20곳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두팔축 지역은 지난 대지진으로 전체 학교의 89%가 훼손 또는 붕괴됐다. 후원계좌 기업은행 062-070908-01-011 사단법인지구촌공생회 박아름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특별만남 주선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오민구)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김도현)는 11월 7일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행사는 25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캐릭터 인형 기념촬영 등 △축하 케이크 컷팅 △이른둥이 아기 성장 동영상 시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24시 동영상 시청 △이른둥이 부모님 양육경험과 소감발표 등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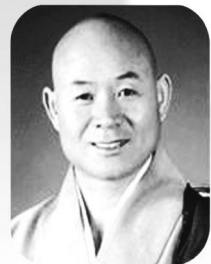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기술이 국내 최고수준이다. 출생체중이 750g 미만에서 약 50% 이상, 1000g 미만에서는 약 70% 이상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 센터를 지정받았다.

김도현 센터장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칩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①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칩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